

# IMF시대의 남북한 유망 교류 협력 산업 분야

이찬우 / 대우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남한과 북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고에서는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상호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 정부가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협력 분야 형성을 위한 과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기존 협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서 특히 필요한 것은 육상 물류 루트의 개설과 금융결제제도 변경(달러 결제 → 원화 결제 또는 청사 결제), 투자 및 교역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남한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머리말

1997년 12월 IMF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국가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 이후, 남한은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구조 조정과 거품 제거를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많은 기업의 도산과 높은 실업률이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구조 조정과 거품 제거를 통해 우리 경제가 더욱 건실한 경쟁력을 갖

는 구조로 변화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식량 위기를 비롯한 경제 위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997년 10월 김정일 비서가 노동당 총비서에 취임한 후 당을 중심으로 한 권력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체제 유지와 정권의 공고화 및 경제 회생'이 최우선 목표인 북한은 올해 김정일 총비서의 국가 주석직 승계를 비롯해 김정일체제가 완전히 구축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우리식사회주의' 사상 통제가 더욱 강화되는 가운데서도, 경제 정책 면에서는 농

업 정책 개선 및 투자 유치 확대 등 경제난 해결을 위한 조치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 관계에서 남한은 IMF체제로 인한 정부의 재정 긴축과 기업의 투자 위축이 대북 교섭력 약화로 이어져, 기존에 김영삼 정부가 북한에 대해 사실상 취한 정책이었던 '절대 우위에 기초한 압박과 통일 유도'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기업들의 구조 조정과 도산(한계 기업 도산 + 금융 위기로 인한 흑자 도산)으로 기업들은 '수익성'에 기초한 투자를 고려할 수밖에 없어, 지금까지와 같은 무조건적인 대북 진출 의욕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남북 교역에서 그 비중이 계속 높아져온 위탁 가공 부문도 원부자재 반출이나 북한 노동자의 임금을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현재의 교환율체제에서는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달러로 결제되는 물류 비용, 중개 수수료 등의 간접 비용도 큰 폭으로 상승하여, 남북 교역은 남북한이 서로 규제 완화를 통해 남한측 기업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지 않는 한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향후 경제 부문에서의 대북 관계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데, 과거 남한 정부의 대북 경제 교류 정책이 정치 우

선의 관점에서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부터 앞으로는 더욱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서 경제 부문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새로 정권을 인수한 김대중 정부가 '전쟁 반대', '흡수 통일 반대', '화해와 교류에 기초한 평화 공존' 정책을 대북 정책 3원칙으로 추진할 것을 표명한 것은 시의적절한 정책 설정이라 하겠다.

북한으로서도 남한의 경제 능력 약화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비록 남한의 국력 감소가 북한 정권의 안정에 간접적으로 정치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남한으로부터의 식량 등 경제 지원이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경제 협력을 통해 귀중한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남한 기업의 대북 경제 협력 여건이 나빠지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최근 남한 신정부 등장을 전후한 북한의 대남 발언을 종합해보면, 북한으로서 남한의 대북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전제를 달기는 하지만 남한과의 관계 개선 용의가 있음을 계속 내비치고 있다.<sup>1)</sup>

따라서 IMF체제 하에서 신정부를 구성한 남한과 본격적인 김정일정권시대를 연 북한

1) 차기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김정일 찬양 광고(1997. 12.16), 「뉴욕타임즈」), “내년초 남쪽에 신정부가 들어서는 등 양측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는 만큼 남북한 관계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발전될 것이다(최경관 북한 적십자회 서기장(1997. 12.22), 북경남북적십자회담), “우리(북)는 남조선이 민족 자주와 대단결의 원칙에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진지한 입장에 돌아선다면 조국 통일 문제를 함께 풀어나갈 용의가 있다(「로동신문」(1997. 3.1) 사설).”

은 상호 대립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는, 민족 내부의 대화와 협력을 우선하는 정책적 합의를 통해 서로의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 공존을 달성하며 향후 통일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본 고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 방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남한과 북한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산업 분야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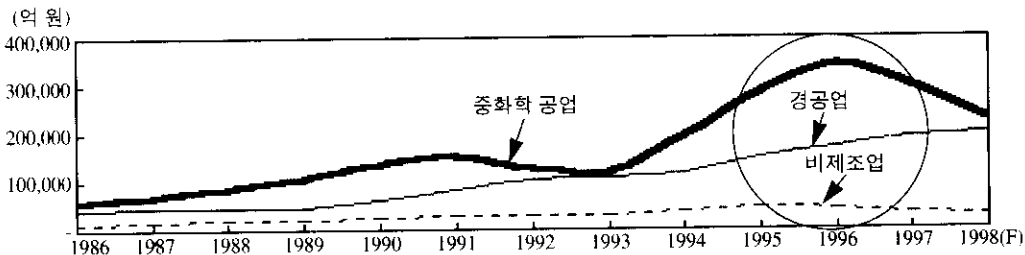
### 남한의 산업 구조 변화 방향

남한의 산업 구조는 대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 중후장대한 수출형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1996년의 반도체 가격 하락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 시장에서 수요 감소과 공급 과잉이 발생하는 경우 민첩하게 대응하기 곤란하다. 제조업의 경우 중저급의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체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의 고급화 및 다양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이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각국이 세계 시장에 중저가 및 중저급의 제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본격 등장하기 시작한 80년대말 이후 줄곧 제기되어왔던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1994~97년간 중화학 공업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로 이러한 구조가 더욱 심화되었으며, 외채 도입에 의한 과잉 투자가 급변 금융 위기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남한은 산업화를 적극 추진한 70년대 이후 현재까지도 기본적으로 중간재 및 자본재를 미국, 일본, 유럽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이용한 가공·조립 제품을 수출하는 산업 구조에 큰 변화가 없다. 경공업 분야에서 중화학 공업 분야로 그 중심이 이동한 것 지나지 않는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는 높은 수출 의존도를 보이면서도 수출을 위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입 유발적 산업

〈그림 1〉 남한의 산업별 설비 투자 추이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 투자 계획 조사」, 각호.

〈표 1〉 설비 투자 구성비 순위 변화

(%)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1975년	1차 금속 (17.5)	석유화학 (9.8)	섬유 (8.6)	운수 장비 (6.2)	비금속 (5.6)	전기·전자 (3.0)
1985년	전기·전자 (12.1)	석유화학 (10.6)	1차 금속 (9.0)	운수 장비 (7.6)	음식료품 (4.4)	섬유 (4.1)
1990년	석유화학 (23.3)	1차 금속 (12.0)	전기·전자 (9.7)	운수 장비 (5.0)	음식료품 (4.8)	비금속 (4.6)
1997년	전기·전자 (22.4)	석유화학 (11.0)	운수 장비 (10.8)	1차 금속 (7.8)	음식료품 (2.6)	섬유 (2.5)

자료: 한국산업은행, 「설비 투자 계획 조사」, 각호.

구조를 나타내어 만성적인 무역 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산업연관표로부터 1993년 남한의 수입 의존도를 일본(1990년)과 비교해보면, 남한이 일본의 2.8 배(제조업 2.7 배)에 달하였으며, 특히 화학 제품, 일반 기계, 전기·전자, 수송 기계 등 중화학 공업 분야는 남한이 일본의 3.1 배에 달하여 수입 유발적 산업 구조임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산업 부문간 중간 투입 가운데서 수입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23.9%(1993년)로서 일본(1990년)의 9.2%에 비해 2.6 배에 달하여 환율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한 수입재 가격 상승이 국내 제조품의 생산 원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조업의 수입 유발 효과는 1993년에 0.290으로 일본(1990년)의 0.119에 비해 2.4 배나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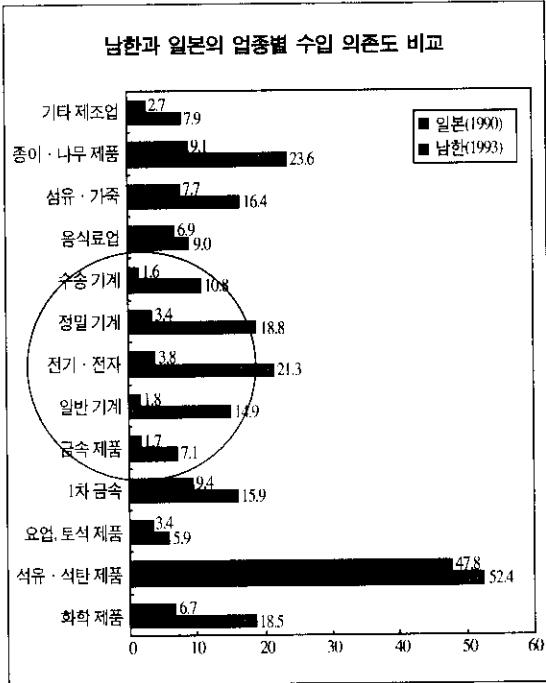
이렇게 취약한 남한의 산업 구조에서 원화 환율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한 금융 위기는 저성장과 재정 초긴축, 고금리 지속이라는 IMF 권고형 경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의 영향이 산업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향후 단기간 내에 나타날 변화 상황을 일반적으로 예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소비 수요의 감소로 인한 내수 산업의 위축이다. 고환율에 따라 수입 중간재 및 자본재를 사용한 국내 생산품 가격이 상승함과 함께 수출과 연관되지 않는 최종 소비재 수입이 억제됨으로써 내수 산업이 위축되게 된다. 또한 20% 수준을 넘어서는 고금리는 기업의 자금 경색을 일으켜 한계 기업의 도산은 물론 능력있는 흑자 기업까지 도산하게 되어 실업자를 양산하게 된다.

둘째, 수출 산업의 비중이 더욱 증대하는

〈표 2〉 산업별 수입 의존도 추이

	1985	1993	일본(1990)
농림 산업	1.8	1.8	1.4
광업	0.7	0.5	1.0
제조업	21.7	16.9	6.2
중화학 공업	27.4	18.3	6.0
화학 제품	23.1	18.5	6.7
석유·석탄 제품	68.3	52.4	47.8
요업·토석 제품	10.7	5.9	3.4
1차 금속	18.2	15.9	9.4
금속 제품	14.7	7.1	1.7
일반 기계	19.5	14.9	1.8
전기·전자	26.3	21.3	3.8
정밀 기계	23.1	18.8	3.4
수송 기계	17.9	10.8	1.6
경공업	13.5	13.5	6.7
음식료업	9.3	9.0	6.9
섬유·가죽	16.4	16.4	7.7
종이·나무 제품	27.1	23.6	9.1
기타 제조업	6.8	7.9	2.7
전력, 가스, 수도 및 건설	4.4	4.6	3.4
서비스업	4.8	3.5	1.5
전산업 평균	12.9	10.0	3.6



자료: 한국은행(1996), 「1993년 산업 연관표(연장표)」.

것이다. 고환율에 따라 수입 중간재 및 자본재의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수출용 생산품 가격은 국제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어느 정도 회복하여 무역수지가 흑자로 반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저환율시대에 해외의 저임금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하였던 산업 부문의 기업들은 해외 생산의 채산성 악화를 피해 국내로 다시 들어오는 U턴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1997년 12월의 국내 업종별 동향을 보면 이러한 현상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는

내수 부진으로 생산과 출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수출은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호조를 보였다. 전자는 연간 실적으로 가정용 범용 제품의 경우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는 대신 상업용과 부품의 수출이 증가하였다. 석유화학은 관련 산업의 생산 둔화로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신장되었다.

그러나 가격 경쟁력의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는, 과거 1986~88년간 엔화의 평가 절상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수출 증가를 경험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단기적

〈표 3〉 주요 업종별 산업 동향

		1997년 12월			1997년 누계	
		전월비	전년 동월비	전년 동기비		
자동차(대)	생산	198,815	-20.3	-11.3	2,818,275	0.2
	출하	247,432	2.2	-15.7	2,829,826	-0.9
	(내수)	100,113	-10.7	-41.0	1,512,935	-8.0
	(수출)	147,319	13.4	19.0	1,316,891	8.8
전자(백만 미 달러)	수출	3,193	-9.3	-8.5	40,734	0.1
	(가정용)	428	-12.8	-20.0	6,311	-16.8
	(산업용)	767	-7.7	-10.0	9,363	15.4
	(부품)	1,998	-9.1	-5.0	25,060	0.3
석유화학(천 톤)	생산	1,120	0.4	12.8	12,244	19.1
	출하	1,100	-1.6	18.7	12,131	20.8
	(내수)	650	-3	9.8	7,523	16.4
	(수출)	450	0.4	34.3	4,608	28.7
철강	생산(천 톤)	3,776	0.1	12.3	42,554	9.4
	수출(백만 미 달러)	505	-21.2	-13.1	6,740	11.3
섬유(백만 미 달러)	수출	1,404	-2.6	-5.5	18,248	3.0

자료: 재정경제원(1998. 2), 「월간 경제 동향」, 산업은행.

인 효과로 끝나게 된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서비스 분야의 개선 등 비가격 경쟁력을 소홀히 한 결과, 중저급품에서 후발 개도국 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상실하고, 신상품 및 고부가가치 상품 시장에서는 선진국 제품에 밀리는 상황이 고착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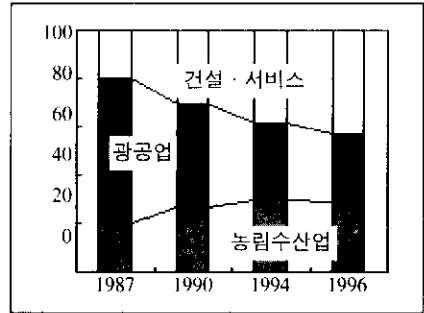
앞으로 남한이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되기 위하여는 제조업 생산의 고부가가치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 연계 강화, 벤처 비즈니스 활성화를 통한 탄력적 경기 대응 능력 고양과 고용 창출, 정보통신 산업 등 지식 산업 활성화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저성장예 따른 소비 위축과 고금리에 따른 투자 위축

으로 내수 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시기에 정부와 경제계가 고부가가치 신성장 산업으로 산업 구조 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것만이 남한의 경제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일 것임에 틀림없다.

위를 위하여 기존의 중저 부가가치 산업 분야는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 더욱 확고한 가격 경쟁력을 가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고, 남한은 보다 고도화된 산업 분야로 이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박해진다 하겠다.

〈표 4〉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 추이

구분	1946	1975	1987	1990	1994	1995	1996
농림수산업	59.1	21.8	20.0	26.8	29.5	27.6	29.0
광공업	23.2	63.0	60.0	42.8	31.4	30.5	28.0
광업					7.8	8.0	7.1
제조업					23.6	22.5	20.9
건설·서비스	17.7	15.2	20.0	30.4	39.1	41.9	43.0
건설					6.3	6.7	6.4
정부 서비스					18.6	20.7	22.5
민간 서비스					9.3	9.6	9.7



자료: 통일원(1986), 「북한 경제 통계집」; 한국은행(1997. 7. 8), 「1996년 북한 GDP 추계 결과」.

###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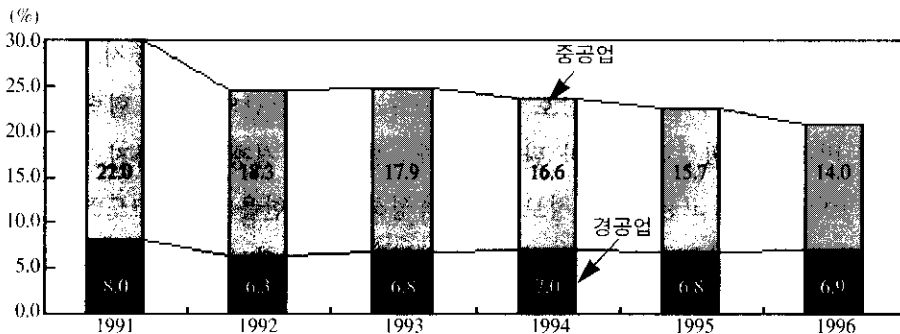
#### 북한의 산업 구조 현황

북한은 50년대 이후 줄곧 사회주의 공업화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광공업의 비중이 1987년 60%까지 달하였으나, 그 후 사회주의권 붕괴와 궤를 같이하며 광공업의 비중이 1996년 28% 수준까지 급속히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외화난에 따른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난과 SOC 부족에 따른 수출 애로로 실물 생산 부문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주민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건설업과 민간 서비스 부문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적 특성으로 정부 서비스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공업이 에너지난·원자재난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어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었으며, 경공업 부문은

〈그림 2〉 북한의 중공업과 경공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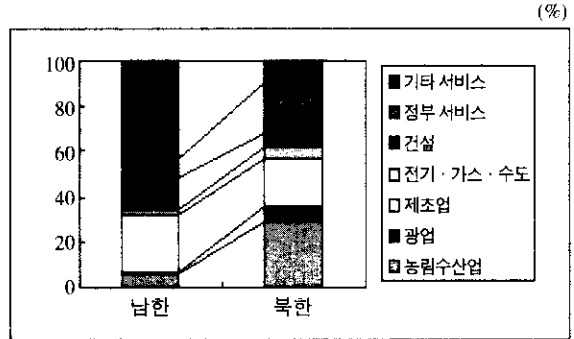


자료: 상동.

〈표 5〉 남북한의 산업 구조 비교(1996년)

구분	남한	북한
농림수산업	6.3	29.0
광업	0.3	7.1
제조업	25.8	20.9
전기·가스·수도	2.2	4.3
건설	14.5	6.4
정부 서비스	8.1	22.5
기타 서비스	42.8	9.7
계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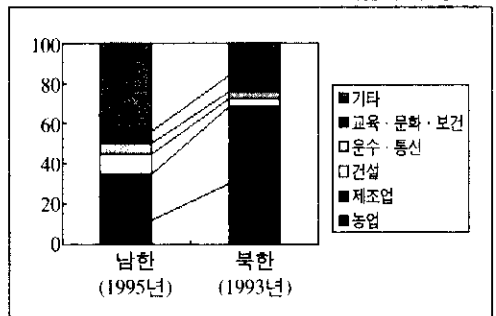
자료: 상동.



〈표 6〉 남북한의 산업별 인구 비교

구분	남한(1995년)		북한(1993년)	
	인구	비중	인구	비중
농업	2,424	11.9	3,382	30.7
제조업	4,773	23.4	4,118	37.4
건설	1,896	9.3	464	4.2
운수·통신	1,068	5.2	402	3.7
교육·문화·보건	1,312	6.4	843	7.7
기타	8,904	43.7	1,796	16.3
계	20,377	100.0	11,005	100.0

(단위: 천 명, %)



자료: 북한 중앙통계국(1995), 「1993년 인구센서스」; 통계청(1996), 「한국 통계 연감」.

중공업과 마찬가지로 이유로 생산은 줄었으나, 임가공 수출의 증가 등에 따라 산업 비중은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 전망

#### ○ 북한의 산업 구조 조정의 기본 방향

북한의 산업 시설 대부분은 이미 노후화 되어 있고, 생산 및 경영 기술도 낙후되어 있

으며, 과잉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어 설비, 생산 기술, 경영체제, 노동자 등 모든 생산 요소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경제가 자생력을 가지면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하여는 우선 시장경제 시스템에 적응하는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가진 최대의 생산 요소는 노동과 자원이므로 이를 감안한 산업 구조 조정이 되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산업 구조 조정은 북한만이



대상이 아니라 남한의 산업 구조 조정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남북한 산업간 상호 보완성을 극대화하여 남북한이 함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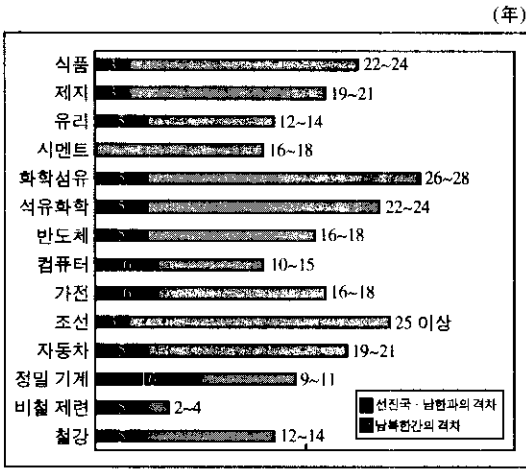
북한 지역의 산업이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갖기 위하여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전력, 물류 기지 등의 SOC 정비 사업과 공업단지 개발, 관광 지역 개발 등의 국토 개발 사업이 남북한간의 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의 협력에 의해 북한의 산업 구조가 변화하는 데는 남한간의 산업 기술 격차를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북한 지역의 산업 기술력을 제고하는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기술 수준은 남한의 70~80년대 수준에 머물러 1996년 기준으로 15~25년의 기술 격차를 보이고 있다

- 남북한간에 기술 격차가 가장 적은 산업 부문은 비철 제련 부문으로서 남한의 90년대 초반 수준이다.
- 남북한간에 10년 안팎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부문은 유리, 컴퓨터, 정밀 기계, 철

<p><b>전략 목표</b> 남북한이 협력하여 상품·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함</p> <p><b>전략 방향</b></p> <p>1. 노동 집약적 산업 부문의 국제 경쟁력 회복과 기반 기술 유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 지역에 해당 산업 이전</li> <li>· 주조, 금형 등 기반 기술 노동력 지속 확보</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가격 및 품질에서 경쟁력 유지</p> <p>- 북한 지역 고용 안정</p> <p>- 남한 지역 산업 퇴출 부문 완충 효과</p> </div> <p>2. 자본 집약적 중간 기술 산업 부문 경쟁력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플랜트 분야의 엔지니어링 능력 제고</li> <li>· 철강·전자 부문의 기술력 제고</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북한 지역에 중장기 투자시 핵심 분야로 육성</p> </div> <p>3. 기술 집약적 미래 산업 분야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한 지역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구조 조정</li> </ul>	<p><b>산업 분야</b></p>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섬유, 신발</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자원 개발</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가전</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일반 기계</td> </tr> </table> <hr/>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석유 화학</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철강, 조선</td> </tr>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전자, 반도체</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자동차</td> </tr> </table> <h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 margin: 5px 0;">메카트로닉스</div> <table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정보통신</td> <td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신소재</td> </tr> </table>	섬유, 신발	자원 개발	가전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신소재
섬유, 신발	자원 개발										
가전	일반 기계										
석유 화학	철강, 조선										
전자, 반도체	자동차										
정보통신	신소재										

〈그림 3〉 남북한의 기술 수준 격차



자료: 산업은행(1996. 2), 「북한의 산업」.

강 등의 부문이다.

- 남한에 비해 20 년 안팎의 기술 격차를 보이는 부문은 식품, 제지, 시멘트, 석유화학, 반도체, 가전, 자동차 등이다.
- 남한에 비해 25 년 이상 뒤떨어진 부문은 화섬, 조선 등이다.

○ 남북한 협력에 의한 북한 산업 구조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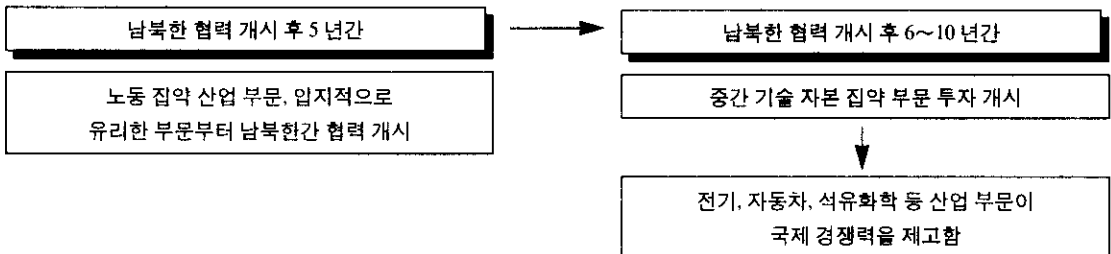
북한의 산업 구조는 1차적으로는 자원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우선 외화 획득이 가능한 경공업과 조립 산업, 광업 부문이 육성되고 내수 시장 형성을 위한 건축업, 관광업, 유통업, 개인 서비스업 등이 육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요한 공업 부문이었던 제철·기계 공업과 화학 공업 부문은 설비 낙후와 원자재 부족,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품질 낙후, 군수 및 석탄화학 위주)로 산업 생산 비중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남한 기업의 투자 진출을 통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고 북한의 경제가 회복된다면 산업 구조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계량 분석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분석을 위해 2000년부터 남북 경제 협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북한의 경제가 희생하여 1인당 GDP가 2010년에 4,500 달러 수준으로 남한의 1988년 수준과 같아진다고 보면 2010년 GDP는 1,237억 달러 수준이 된다.

북한의 산업 구조가 점차 남한과 비슷한



구조로 변화한다는 가정 아래 남한의 1975~95년간의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를 회귀 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모델을 설정하여 전망하였다. 이 모델에 의한 분석 결과, 산업별로는 농

업 135억 달러(10.9%), 광공업 373억 달러(30.2%), 건설업 200억 달러(16.2%), 서비스 부문 528억 달러(42.7%)의 구성비를 보여 현재 남한의 산업 구조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sup>2)</sup>

- GDP : GDP와 고용간의 함수 관계를 활용하여 추산하였음

$$GDP = -301.1470 + 0.025691 \times \text{취업 인구} + 1.058958 \times GDP(-1)$$

(-1.424721)      (1.572251)      (23.13830)

(                    ): t-Statistic, R-Squared: 0.998472, Durbin-Watson Statistic: 1.922799

- 산업 부문별 GDP

① 농업·광공업: 1975~95년간의 총GDP, 산업별 고용 인구, 전년도 GDP를 변수로 하여 상관 관계에 대한 회귀 모델을 산출하고 이를 북한에 적용하였음

$$INDG_t = a + bGNP_t + cINDL_t + INDG_{t-1}$$

INDG: t기의 각 산업 부문의 GDP  
GNP: t기의 총GDP  
INDL: t기의 각 산업 부문의 취업 인구  
INDG<sub>t-1</sub>: (t-1)기의 각 산업 부문의 GDP

< 추정식 >

$$\text{농업 GDP} = 36.51354 + 0.017860GDP - 0.036914\text{농업L} + 0.672312\text{농업GDP}(-1)$$

(1.173629)    (2.100565)    (-0.749413)    (3.119703)

(                    ): t-Statistic, R-Squared: 0.992753, Durbin-Watson Statistic: 2.601801

$$\text{광공업 GDP} = -100.779 + 0.222324GDP - 0.405787\text{광공업L} + 0.091022\text{광공업GDP}(-1)$$

(-4.794046)    (6.751571)    (5.615923)    (0.610800)

(                    ): t-Statistic, R-Squared: 0.999123, Durbin-Watson Statistic: 1.1184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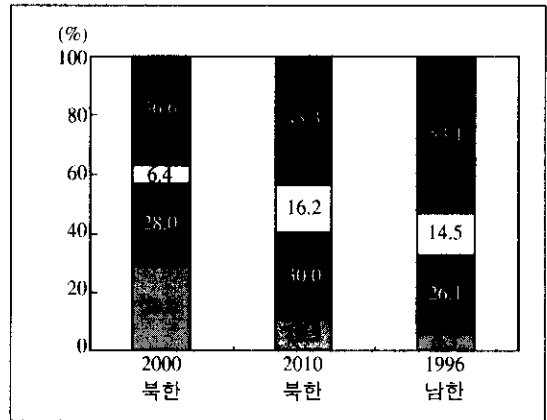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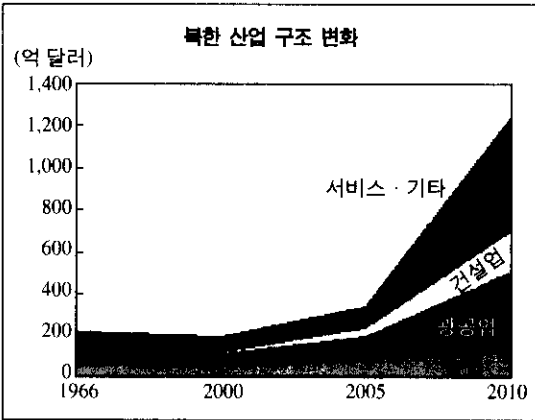
- ② 건설업: 지속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2010년 총GDP 대비 비중을 남한(1996년 14.5%)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16%로 조정하고 연평균 증가율(25%)을 적용함
- ③ 서비스·기타: 총GDP에서 농업·광공업·건설 부문을 차감함

2) 북한의 GDP는 1997년 이후 매년 3%씩 감소하여 2000년에는 189억 달러로 줄어드는 것으로 가정한다.

〈표 7〉 북한의 산업 구조 변화 전망

(단위: 억 달러, %)

산업 부문	2000년		2005년		2010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총액	구성비
농업	55	29.0	88	26.0	130	10.5
광공업	53	28.0	103	30.5	371	30.0
건설업	12	6.4	46	13.7	200	16.2
서비스·기타	69	36.6	101	29.8	536	43.3
GDP 계	189	100.0	337	100.0	1,237	100.0



자료: 대우경제연구소 추정.

**남북한간 경제 협력 유망 분야**

남한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IMF체제에서는 고환율에 따라 해외에서의 현지 생산 동기가 줄어들고 국내 생산 → 수출의 구조가 증가한다. 그리고 내수가 위축되므로 남북한간에 교역을 포함한 경제 협력은 그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최근 2월에 한국무역협회가 남북 경협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sup>3)</sup>에 잘 나타나고

있다. 즉, 조사 대상 기업의 93%가 금융 위기에 따라 대북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전체의 72%가 남북 교역을 일시 중단 후 상황 호전시 재개하거나 또는 반입 물량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대북 투자에 대해서도 응답 업체의 79%가 투자를 연기하겠다고 답했으며,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도 13%로 나타나 대북 투자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

3) 한국무역협회(1998. 2.7), 「최근 금융·외환 위기에 따른 남북 경협 영향 실태 조사」.

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남한의 현재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도 산업 구조의 조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 경제 논리에 입각한 남북한간의 경제 교류가 더욱 요망되는 때이다. 현재 남북 경제 협력 과정에서는 불필요한 비용 부담 즉, 음성적 대가 제공, 과도한 물류비, 달러화 결제에 따른 비용 상승 등의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고 남북한 정부가 경제 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절차의 간소화, 결제 방식 개선, 육상 교통로 연결 등을 추진한다면, 남한 기업은 북한 지역을 동일한 경제권 내의 생산 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경제 협력에 계속 나설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설문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8%가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조정 차원에서 대북 사업을 더욱 확대 또는 유지하겠다고 응답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항에서는 남북한이 상호 산업 구조의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기로 한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이 노동력과 천연 자원과 저수준 산업 기술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협력 분야는 섬유, 의복, 가전 제품 조립, 부품 산업, 광업, 시멘트, 건자재, 요업, 관광 관련 산업 등이다. 그리고 비료,

농약 등을 지원하면 생산성 향상이 기대되는 농업도 주요한 경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전자,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남한의 주력 산업 분야의 협력도 가능할 것이다. 각 업종별로 남북 경제 협력의 유망 분야를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 광업

철, 비철 금속, 비금속 광물 등 천연 자원 개발 산업은 북한 경제 회생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한 지역에는 철, 금, 은, 동, 연, 아연, 니켈 등의 금속 광물과, 석탄, 우라늄 등의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중석, 석회석, 흑연, 고령토, 마그네사이트 등의 비금속 광물도 풍부하여 이들 광물 자원은 북한 지역의 주요 수출 상품으로 계속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북한이 이들 천연 자원 개발에 대하여 남한 기업의 참여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남북한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북한이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분야로 여겨진다.

### 음식료업

이 분야는 속성상 내수를 위주로 한 산업이므로 식품 가공, 음료, 담배 등 기호품, 인

〈표 8〉 북한의 주요 광물 자원

구분	매장량	생산 능력	주요 광산
석탄	147억 톤	3,000만 톤	평안남도 안주, 덕천, 신창 함경북도 은덕
철광석	30억 톤	1,500만 톤	함경북도 무산, 이원 평안남도 개천 황해남도 은율, 재령
금 은	1,000 톤 5,000 톤	5,500 kg 1만 2,000 kg	평안북도 운산, 동창(대유동) 황해북도 수안, 연산
동	950만 톤	9만 톤	양강도 갑산 함경남도 허천
연 아연	120만 톤 600만 톤	8만 8,000 톤	함경남도 단천(검덕: 아시아 최대 생산지) 자강도 용림
니켈	1,200만 톤	30만 톤	강원도 창도, 금강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150만 톤	함경남도 단천 (세계 최대 매장량)

자료: 경제기획원(1994. 9), 「북한 경제 편람」.

스턴트 식품 및 유가공 제품 분야에 남한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내수 분야에의 사업 진출은 수익성을 위주로 할 경우 북한 주민의 낮은 구매력과 제품 보관 상의 리스크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버섯 등의 임산물과, 미네랄 워터, 수산물 등은 가공 수출을 위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서 남한으로의 반입과 일본 등 선진국으로의 수출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분야이다.

####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과 가전 제품 조립 산업

전력, 교통 환경, 노동력의 입지 조건이 좋으며 수출에 유리한 지역으로 남한의 기업

이 설비 확대 또는 이전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으로는 평양 및 남포 지역, 개성 지역, 원산 지역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조총련계 기업과의 의류 부문 합영 기업은 1993년말 현재 22 개 정도가 임가공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남한 기업들도 (주)대우의 남포 합영 공장 등에서 임가공을 통해 봉제 의류를 생산하고 있어 남북한 경제 협력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활발한 협력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 분야 가운데 공해 유발 업종인 가죽, 염색 등의 업종은 용수 조건과 중국과의 물류 조건이 좋은 신의주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표 9〉 북한의 주요 시멘트 생산 시설

(단위: 만 톤)

주요 생산지	순천 (평남)	상원 (평양)	승호리 (평양)	해주 (황남)	2·8 (황북)	고무산 (함북)	천내리 (강원)	구장 (평북)
연간 생산 능력	300	200	95	125	160	57	80	60

자료: 북한연구소(1994. 5), 「북한 총람」.

### 시멘트 산업

북한은 시멘트의 원료인 석회석이 약 1,000억 톤 매장되어 있으며 품질도 우수하여 기존의 시멘트 공장은 남한과의 협력에 의한 설비 개체를 통해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멘트 공장으로는 일제 때 건설된 승호리, 2·8, 해주, 천내리, 고무산시멘트공장 등이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70년대 후반에 완공된 연산 300만 톤 규모의 순천(평남)시멘트연합기업소, 1989년에 조업을 시작한 연산 200만 톤 규모의 상원(평양)시멘트연합기업소 등이 주로 가동되고 있다. 품질은 순천의 금강표시멘트가 남한산과 별 차이가 없으나 나머지는 다소 불량하고 강도가 떨어진다.

### 요업

함경북도 단천 지역에 내화물 재료인 마그네사이트가 세계 최대 규모로 매장되어 있

으며 품질도 뛰어나다. 청진과 김책 지역에 내화물 공장이 집중되어 있다. 도자기 재료인 고령토는 함경북도 경성군, 황해북도 해주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도자기 산업의 주요 지대가 될 수 있다. 남한 기업은 북한에 도자기 생산 기지를 확대 또는 이전하여 남한 지역의 내수와 세계 시장으로 진출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 화학

화학 비료 부문은 유기질 비료와 함께 농업 생산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협력을 해야 할 부분이다. 북한에서 현재 화학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소는 흥남화학비료(함흥), 사리원카리비료, 순천비날론, 7월4일공장 등이 있다.

정유 산업의 경우 구소련의 원조로 건설된 선봉의 승리화학공장(연산 200만 톤)과, 중국의 원조로 건설된 봉화화학공장(연산 150만 톤) 등 2 개소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정유 공장의 추가 건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정유 시설은 해외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수송 루트 등을 감안하여 해주항을 원유 수입항으로 개발하여 해주 부근에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석유화학 제품 부문은 소비가 극도로 억제되었던 부문이었으나 향후 석유화학 관련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에는 평남 안주의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유일한 석유화학코비나트로서 승리 및 봉화화학공장에서 나프타를 공급받아 요소 등의 화학 비료와 폴리에틸렌, 아닐론 등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남흥청년화학공장을 증설하고 해주 지역에 제2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 기계·철강

북한은 60년대부터 자체생산체제를 갖추어 남한보다 일찍 발달되었으나, 기술 개발의 지체와 부품 공급 능력 부족 등으로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급속히 상실하였다. 그리고 입지를 살펴보면 제철 산업 입지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형성되어 있어 군사적으로 유사시 지역 단위에서 원료 및 후방 공급, 무기 조달 등 자체 조달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었기 때문에, 산업간 연계 효과가 적고 중복 투자

를 초래하여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 즉, 북한의 공업지대에는 모두 기계 공업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경제 협력으로 기계 공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 면에서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감안하면 기계 공업 분야는 남포 및 청진의 두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한간 경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협력의 내용은 초기 단계에서는 기계 부품 생산 기지 이전을 통해 진출하며 장기적으로는 기계 조립 및 완제품 생산 기지의 이전을 고려해볼 수 있다.

#### 비철 금속

동, 연, 아연, 알루미늄, 금, 은 등은 북한의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수출할 수 있는 주요한 품목으로서, 최근 남한으로의 반출이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주요한 남북 교역 품목으로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제련 분야의 남북한간 기술 격차는 3년 정도에 불과해 향후 남북 협력 분야에서 대단히 유망한 분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 전기·전자

전기 기계의 경우 중전기 분야가 5만 kW급 발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정도이나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경전기 부문은 조명 기구, 전열 기구 등이 생산되고 있으나 역시 품질 면에서 낙후한 실정이다. 가전 제품의 경우는 주로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며 컴퓨터 산업은 기술 도입의 한계, 자본 부족 등으로 가장 낙후한 분야이다. 통신 기기는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생산하는 수준이며 TDX 교환기는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전화기 보급률은 인구 100명당 5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부품 조립 가공 성격이 강한 이 분야의 특성상 북한의 저임금을 활용한 수출도 유망하여, 이에 따라 남북 협력을 통해 남한 내의 공장이 북한으로 확대·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입지 지역은 기존의 평양·남포공업 지대와 신의주(→중국), 원산(→일본) 지역이 가능성이 있다.

### 자동차

북한에는 총 37만여 대의 자동차가 있으며 그 가운데 60%인 20만 대가 군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70년대 이후 부품 국산화 전략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90% 이상의 자동차 부품과 엔진은 자체로 제작이 가능하나 정밀 기계 부품이나 전기·전자 부품은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 생산 능력은 3만 3,000 대 정도이나 1만 대 정도만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되는 자동차의 90%

〈표 10〉 북한의 자동차 공장 현황

공장명	소재지	차종	명칭	적재량(톤)	비고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	덕천	트럭	승리 58호	2.5	북한 최초의 양산 트럭  1973년 생산 1964년 생산 1974년 생산
			승리 61	2.5	
			투쟁	3.7	
			자주	10	
		건설	27		
		지프	갱생 86	4인승	
		승용차	승리 415		
			백두산		
평양무궤도전차공장	평양	버스	총성	22인승	
동평양기계공장	평양	트럭	태백산	4	1979년 생산
			금수산	40	
			100톤 기념	100	
			새승리		
청진자동차수리공장	청진	버스	천리마 74	트롤리	

자료: 조선중앙통신사(1989), 「조선중앙연감」.

이상이 트럭 등의 화물 자동차이다.

자동차 산업 분야는 남북간 경제 협력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아지는 단계에서 수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생산 기지 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승리자동차연합기업소는 내수 중심의 입지 조건으로서 수출 중심의 생산 기지로서는 불리한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 남북 협력시에는 남포 등의 해안 지역에 새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조선

조선 분야도 자동차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남북 경제 협력이 무르익는 단계에서 남한 조선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북한의 원산 지역 등에 제2조선소를 건설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

#### 건설업

북한의 경제가 남북 경제 협력을 계기로 성장 궤도로 진입하는 경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통신, 상하수도, 천연 가스 파이프라인 등의 SOC 건설과 주택 건설, 발전소 건설, 간석지 개간 등 국토 종합 개발 사업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 분야는 북한의 자체 기술과 자

체 노동력을 동원하여 추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으로 보여 남한은 자본 공여와 기술 감리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유통업

이 분야에서의 남북간 경제 협력은 상당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단, 중국·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경유하여 남한에 이르는 물류유통망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은 도매 유통 기지로서 유망한 지역적 입지 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이 분야에서의 남북 경협이 전망된다.

#### 관광·숙박업

남북간 경제 협력이 확대되면 곧 북한 지역에서의 남한 주민의 관광 여행이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관광·숙박업의 최대 호황이 예상된다. 북한에서 관광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는 <표 11>처럼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유망 산업 분야에 대한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 전략

#### 전략적 목표 설정

남한 기업이 북한에 진출하는 데는 전략

〈표 11〉 북한에서 관광 개발 추진의 원칙과 내용

원칙	내용
북한 지역의 자연 여건에 부합하는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두산, 묘향산, 금강산, 칠보산, 구월산 등의 명산 지역에 자연 관광 · 생태 관광 · 체험 관광 · 모험 관광 상품을 개발함</li> <li>· 숙박 시설은 현대적인 호텔 시설과 소규모 단위 전통 숙박 시설을 모두 고려해볼 수 있음</li> <li>· 함남 주물온천, 시중호 등 자연 호수를 이용한 휴양 스포츠, 산채를 원료로 한 토속 음식 개발</li> <li>· 개마고원, 구월산 등 적설량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동계 스포츠 지역으로 개발</li> <li>· 남한의 연금 생활자와 이산 가족이 북한 지역에서 희망 기간 동안 체류할 수 있는 지역으로 주물 온천, 삼지연, 시중호 지역 등 개발</li> </ul>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극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통 민속 놀이, 세시 풍속, 음악, 무용 등을 발굴하여 관광 상품화함</li> </ul>

자료: 한국관광공사(1994), 「북한 지역 관광 상품 개발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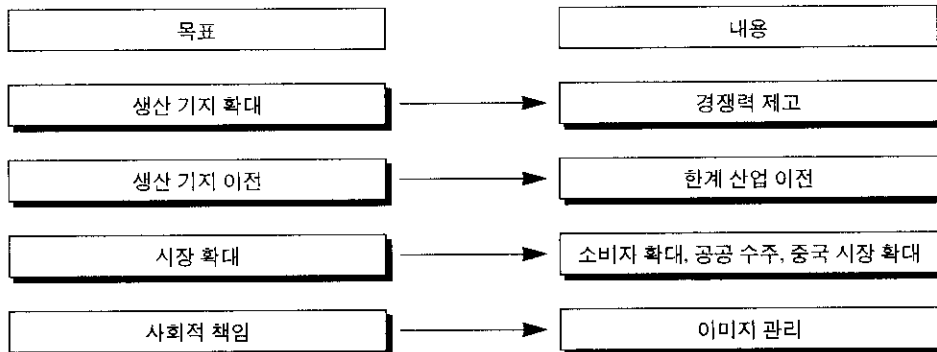
적 목표 설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정할 수 있는 목표로는 시장 확대 전략, 신사업 진출 전략, 생산 기지 확대 또는 이전, 사회적 이미지 제고 전략 등을 들 수 있다.

○ 생산 기지 확대 · 이전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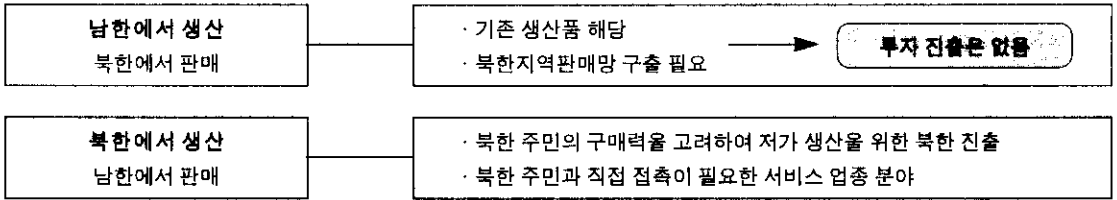
남한 지역에서 장기적으로 국제 경쟁력이

쇠퇴하는 분야는 북한 지역에 생산 기지를 이전하여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1차적으로는 노동 집약 산업 부문인 섬유, 의류, 신발 등의 경공업 부문과 제지, 가구, 광업 부문 등이 생산 기지 이전을 추진할 것이며, 경제 협력이 발전하면서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석유화학 등의 중공업 분야가 뒤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남한 기업의 대북한 진출의 전략 목표 설정



〈그림 5〉 시장 확대 전략



○ 시장 확대 전략

북한 주민을 수요자로 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시장 확대 전략이나 현재의 단계에서는 북한 주민의 구매력이 대단히 낮아 전략으로 설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분간 북한 지역은 수출 및 남한 내수를 위한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남북한 경제 협력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도 2,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소비 시장으로 발전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한 기업의 시장 확대 진출 전략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시장에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의 전략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중국은 수입 대체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어 수출 중심의 대중국 시장 진출 전략은 이미 직접 투자 전략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IMF 체제 하에서 중국에 진출한 남한 기업은 채산성의 악화를 경험하면서 투자의 보류 또는 회수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급 직물

분야, 석유화학 가공 제품 분야, 전자 부품 등의 품목은 중국 시장의 지속적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므로, 남한의 고기술과 북한 지역의 노동력으로 북한 지역에서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산할 경우 중국 시장에서의 수출이 계속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산 기지 확대 전략과도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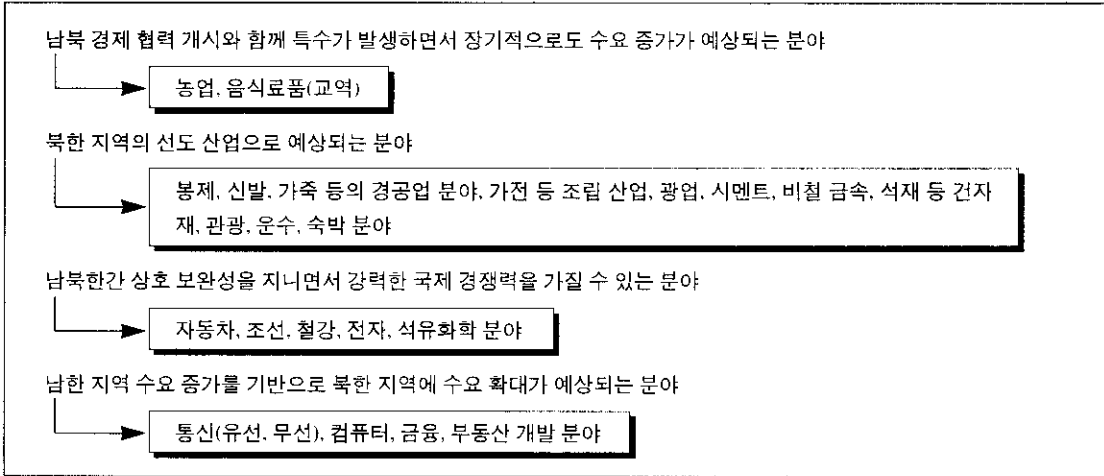
단계별 기업 진출 전략

남한 기업은 남북간 경제 협력의 발전 과정에 대하여 단계별로 적절히 대응하는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즉, 북한 지역의 산업 구조 조정 과정에서 성장이 예상되는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기 단계부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맺음말

남북한간에 경제 협력은 현재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제적 위기 상황

〈그림 6〉 단계별 기업 진출 전략



에서 수익성을 위주로 한 기업 경영은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대해 비판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동안 투자 진출을 추진했던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 협력 사업을 사실상 포기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하겠다. 반면, 정치적으로는 신정부의 등장으로 그동안 대립 관계였던 남북 관계가 평화 공존의 관계로 이행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정부시대에 정치적 대립 지속과 경제적 협력 모색이라는 상황이 정치적 화해 모색과 경제적 협력 곤란이라는 상황으로 반전된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남한과 북한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의 산업 구조 조정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고에서는 살펴보았다.

남북한의 상호 산업 구조 조정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양 정부가 상호 신뢰를 형성하면서 협력 분야 형성을 위한 과감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기존 협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서 특히 필요한 것은 육상 물류 루트의 개설과 금융결제제도 변경(달러 결제 → 원화 결제 또는 청사 결제), 투자 및 교역 절차 간소화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 남한의 기업들이 앞으로는 수익성을 보장받으면서 북한과의 경제 협력에 종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92**

〈漫評〉 39



기도문 - "뜻이 하늘에 있으니 땅에서도 이루어 지리"